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2]

(가) 앞에 가던 아우가 풀숲에서 빛나는 물건을 주웠어. 그것은 금으로 만든 금구슬이었어. 그것도 두 개씩이나 있었지 뭐야. 아우는 기쁜 마음에, 큰 것은 형에게 건네주고 작은 것은 자기가 가졌어.

(나) “아우야, 그 귀한 금구슬을 왜 버렸어?”

그러자 아우가 이렇게 말했지.

“금구슬이 생기고 나서부터 형님이 자꾸 미워지고 욕심이 더 생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지 뭐예요? 저에게는 그까짓 금구슬보다 형님이 더 소중해요.”

이 말을 듣고 보니, 형님도 아우를 잠깐이나마 미워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어. 잠시 후에, 형도 저고리 깊은 곳에 두었던 금구슬을 꺼내서 강물 속에 던져 버렸어.

1. 아우가 금구슬을 버린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금구슬보다 형님이 소중해서
- ② 금구슬이 귀한 것인 줄 잘 몰라서
- ③ 금구슬 때문에 형님이 자꾸 미워져서
- ④ 욕심이 더 생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 ⑤ 형제 간의 우애가 없어질까 봐 겁이 나서

2. 다음에서 아우의 행동에 주의하여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영 : 아우님은 참 착하고 용기 있는 분이예요. 형님이 미워지고 욕심이 더 생긴다며 금구슬을 버렸잖아요.

·민준 : 아우님은 형님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형님께 “저에게는 그까짓 금구슬보다 형님이 더 소중해요.”라고 했잖아요.

·상희 : 아우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우님이었어도 ‘내가 더 큰 구슬을 가질걸.’ 하고 생각했을 거 같아요.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4]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에, 정아는 우체국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할머니께 편지를 부치러 가는 길인데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래?”

그러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우체국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쪽으로 쪽 가서 다시 왼쪽으로 쪽 가면 돼.”

정아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뭐? 이쪽이 어디야? 그리고 어디쯤에서 왼쪽으로 가야 하니?”

3. 이 글에서 정아가 우체국에 가려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quad)$$

4. 민수는 정아에게 어떻게 길을 가르쳐 주었는지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예를 들어 가며 말하였다.
- ②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③ 정아가 알고 있는 곳부터 설명하였다.
- ④ 정확하지 않은 말로 대충 설명하였다.
- ⑤ 우체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말하였다.

◎ 다음 다섯고개 놀이의 질문과 대답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5~6]

	질문	대답
1	동물인가요?	네, 동물입니다.
2	걸어다니나요?	아니요, 날아다닙니다.
3	어떤 소리를 내나요?	‘구구구’ 소리를 냅니다.
4	이름은 몇 글자인가요?	세 글자입니다.
5	첫 글자는 무엇인가요?	‘비’입니다.

5. 이 다섯고개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left(\begin{array}{c} \text{ } \end{array} \right)$$

6. 두 번째까지의 질문과 대답을 보고 생각나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갈매기 ② 까마귀
③ 강아지 ④ 두루미
⑤ 뽕꾸기

7. 다음 시의 글쓰기는 어떤 모습을 보고
시를 썼겠습니까?

까치

책책책 책책책책
응원을 하나 봐요
삼삼칠 박수를
어디서 배웠을까
꼬리를
흔들어 대며
책책책책 책책책

- ① 까치가 싸우는 모습
- ② 까치가 밥을 먹는 모습
- ③ 까치가 걸어 다니는 모습
- ④ 까치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
- ⑤ 까치가 꼬리를 흔드는 모습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9]

용기전에 도착해 보니, 앞마당에 줄지어 서 있는 향아리가 보였다. 크고 작은 향아리, 배불뚝이 모양이 조금씩 다른 향아리가 있었다. 향아리는 대부분 갈색인데, 어떤 것은 반들반들하였다.

옹기전 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많았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수저통, 찻잔 등 여러 가지였다. 집에서 본 주전자도 있었다.

“어머니, 이게 다 옹기예요?”

“그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란단다. 요즈음에는 다양한 모양의 용기를 만들고 있구나.”

“어머니는 왜 옹기그릇을 좋아하세
요?”

“옹기그릇은 옛날부터 조상들이 쓰던 그릇이야. 음식물을 담아 놓으면 쉽게 상하지 않지. 맛도 더 좋아진단다.”


8. 이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옹기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 수 있다.
- ② 옹기에 대해 궁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③ 옹기를 아끼자는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다.
- ④ 옹기에 대해 이전에 몰랐던 내용을 알 수 있다.
- ⑤ 옹기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9. 다음은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옹기그릇 의 	향아리,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수저통, 찻잔, 주전자 등
옹기그릇 의 재료	진흙(흙)
옹기그릇 의 좋은 점	음식물을 담아 놓으면 쉽게 상하지 않고, 맛도 더 좋아짐.

- ① 색깔 ② 크기 ③ 종류
④ 가격 ⑤ 역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11]

원숭이도 일어나서 말하셨습니다.

“별나라에서는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별나라에서 보고 들은 일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할 수 있어요. 별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곳의 모습을 잘 전할 수 있는 제가 지구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10. 이 글에서 원숭이의 의견은 무엇인지,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
시오.

제가 지구의 대표가 되어 에 가
야 합니다.

$$\left(\begin{array}{c} \text{ } \end{array} \right)$$



11. 다음 중 발음이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일이[이리]
- ② 일어날[이러날]
- ③ 들은[드른]
- ④ 친구들이[친구드리]
- ⑤ 모습을[모습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12~14]

나는 키가 아주 작다. 그래서 친구들은 나를 ‘꼬마’라고 부른다. 작은 키 때문에 1학년 동생들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 그럴 때 가장 기분이 나쁘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형섭이가 내 뒤를 따라왔다.

“야, 꼬마!”

나는 돌아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형섭이를 노려보았다.

“어, 꼬마가 노려보네. 노려보면 어쩔 건데?”

“내 이름이 있는데, 왜 나를 꼬마라고 놀려?”

형섭이를 한 대 때려 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꺾 참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께 ㉠형섭이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다 듣고 나신 ㉡아버지께서 빙그레 웃으셨다.

“우리 용우가 마음이 아주 크구나. 그게 더 멋지단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조금 풀렸다.

12. ‘내’가 가장 기분 나쁠 때는 언제입니까?

- ① 친구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 ② 키가 큰 형섭이가 따라올 때
- ③ 친구들이 ‘꼬마’라고 부를 때
- ④ 1학년 동생들이 이름을 부를 때
- ⑤ 1학년 동생들이 형이라고 부를 때

13. 다음 ①~④를 ㉠‘형섭이와 있었던 일’의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번호를 쓰시오.

- ① 형섭이가 ‘꼬마’라고 놀렸다.
- ② 집에 오는 길에 형섭이가 따라왔다.
- ③ 형섭이를 때려 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 ④ 형섭이에게 왜 꼬마라고 부르냐고 따졌다.

()

14. ㉡의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 ① ‘꼬마’라는 별명이 웃겨서
- ② 용우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 ③ 용우의 이야기가 거짓이어서
- ④ 놀림을 받는 용우가 불쌍해서
- ⑤ 싸우지 않은 용우가 대견해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5~16]

신하들은 불개를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불개가 토해 낸 불덩이도 꺼지고 말았습니다.

‘아, 불개가 햇빛과 달빛을 가져왔었구나!’

임금님은 뒤늦게 후회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쪽에서 오색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멀리서 학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학들은 떨어지는 불개를 구름에 태워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멀리 바다 위로 눈부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해다. 밝은 나라야!”

불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 임금님은 불개가 무엇무엇을 가져왔었다고 생각하였습니까?

()

16. ㉠에 가장 어울리는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 ① 졸린 목소리
- ② 화가 난 목소리
- ③ 심술궂은 목소리
- ④ 욕심내는 듯한 목소리
- ⑤ 감동을 받아 떨리는 듯한 목소리

17. 소개하는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소개한다.
- ② 미리 준비하지 말고 곧바로 쓴다.
- ③ 내가 궁금했던 내용만 중심으로 쓴다.
- ④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쓴다.
- ⑤ 글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글자는 틀려도 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8~19]

유정이에게

아까 너에게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서 같이 숙제하지 않을래? 모르는 것을 서로 가르쳐 주면 좋잖아?

그리고 숙제 하고 나서 재미있게 놀자.

18. 이 글에서 빠져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 중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 ㉠ 받을 사람
- ㉡ 보낸 사람
- ㉢ 전하고 싶은 내용과 그 까닭

()



19. 이 글을 쓴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① 심한 말을 했던 것을 사과하려고
- ② 숙제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해 주려고
- ③ 같이 숙제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려고
- ④ 유정이가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 ⑤ 모르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려고

20. 다음 의견에 알맞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는 동화 나라에 가 보고 싶어.

- ①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야.
- ② 책을 사는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야.
- ③ 동화 속 주인공과 이야기하고 싶어서야.
- ④ 책을 끝까지 읽는 것은 너무 지루하기 때문이야.
- ⑤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서야.